【편집노트】

특집: 헤테로토피아와 만주

이번 호에는 '낯선, 다른, 혼종·혼재하는 공간'이라는 뜻의 헤테로토피아가 헤드 토픽입니다. 편협한 민족주의 관점을 넘어 만주를 새롭게 조망하는 하나의 분석틀로서 헤테로토피아는 다양한 문제를 제기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토피아와 달리 현실에 존재하지만 현재의 일상과 정상과 구분되는 복수적·이질적 공간으로서의 헤테로토피아를 근대 만주에서 찾아보려는 우리의 노력은 이러한 희망 속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토피아적 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오족협화니, 왕도낙토니 하는 구호들 속에 삐죽 고개를 내밀고 있는 감시와 처벌, 배제의 공간이 갖는 의미는 그 자체로 헤테로토피아를 향한 여행이 지니는 어려움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헤테로토피아, 제 3의 눈으로 읽는 만주」는 현경준의 소설 「유맹」 속에 등장하는 집단부락인 보도소를 공간으로 한 서사 속에서 제3지대로의 공간 지향성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안>과 <밖>의 이질적 공간마저 거부하고 제3지대를 소망하는 이들 속에 내재된 꿈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상상계와 현상계의 사이」는 푸코가 제시한 헤테로토피아의 개념틀 안에서 하얼빈의 야간학교, 공장의 노동운동, 그리고 매춘굴과 같은 다양한 장소를 통해 불균질화되고 혼종되어 가는 하얼빈의 공간 전환의 특징을 묘사합니다. "A Journey into Heterotopia"는 영화 <놈·놈·놈>에 등장하는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그리고 제국주의라는 현실의 혼재에서 '웨스턴'이 어떻게 헤테로토피아와 연관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세계화, 세방화, 다문화가 혼재하는 오늘의 혼종 공간을 이해하

는 하나의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일본소설 속의 헤테로화하는 공간, 만주」는 나츠메 소세키를 읽어 일본에서의 실패자, 낙오자들이 만주라는 공간에서 희망과 이상을 어떻게 품게 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만주가 '대상(代償)의 헤테로토피아' 공간을 의미할 터, 하지만 만주국 건국 이전의 소설들을 텍스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왕도낙토 개념에 충실한 글쓰기라는 오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베 코보의 소설을 통해서는 작가의 식민지 비판이나 전도되는 만주장(場)에 대해 소상히 살피고 있습니다. 「틈새의 헤테로토피아, 만주」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한국인 노인들을 인터뷰한 구술 자료집 『검은 우산 아래에서: 식민지 조선의 목소리』를 텍스트로 하여 식민지 조선의 평범한 사람들이 제국 일본이라는 '검은 우산' 아래에서 만주라는 곳으로의 공간적 이동을 통해 발현되던 욕망의 실체를 구명함으로써 이주의 연관성을 살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운규 영화와 만주」는 나운규의 영화 「풍운아」와 「사랑을 차저서」에 그려진 만주의 속살을 살펴 그의 영화가 드러내 보이는 '활극성' 속에 똬리를 틀고 있는 억압과 은폐를 시원하게 해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매우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주제의 논문을 투고해주셨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다만 죄송한 것은 가능한 한 인문학의 본래 모습에 가까운 문·사·철 관련 논문을 실으려고 하다 보니 어떤 논문은 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런 분들에게는 머리를 조아립니다. 모쪼록 앞으로도 『인문연구』가 영남대라는, 그리고 영남이라는 지역성을 넘어 다양한 공간의 연구자들에게 연구의 활성화를 촉발하는 공론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집위원회